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3. 10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**美 합참의장, 시리아 內 ISIS 소탕작전 강조**
  - 3.4 美 「마크 밀리」 합참의장은 시리아 북동부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방문, ISIS에 대한 최신 군사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“중동 지역 동맹 지원을 위해 ISIS를 지속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
- **美, 서남아시아 대테러 공조 위해 파키스탄과 '대테러 회담' 개최**
  - 3.5 美 국무부는 3.6~7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市에서 개최되는 '美-파키스탄 대테러 회담'에 汎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여 '파키스탄 탈레반 (TTP)' 등 테러단체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
    - ※ 한편,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 (TTP), ISIS-K(호라산 지부)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美國과 대테러 공조 희망
- **美, 경찰훈련센터 부지 공격한 23명 국내 테러 혐의 기소**
  - 3.7 언론은 지난 1월 애틀랜타市 인근 공공안전훈련센터 예정 부지에 난입하여 경찰에 돌·화염병·폭죽 등을 투척하고 타이어를 이용해 도로를 봉쇄한 시위대 23명이 국내 테러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
    - ※ 경찰의 군사화 반대 및 개혁을 요구하고, 환경보호 등을 주장하며 同장소를 공격

#### 유럽

- **EU, 트위터에 테러 관련 콘텐츠 등 모니터링 인력 충원 권고**
  - 3.7 EU는 지난달 트위터 등 IT 대기업을 디지털서비스法(Digital Service Act)\*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, 최근 트위터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「일론 머스크」에게 테러 관련 콘텐츠 감독 인력 확대 요구
    - \* 특정 인종·성·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, 테러·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, 내년 초 전면 시행 예정

## 아 · 태평양

- **쿼드(Quad)\*, 대테러 워킹 그룹 설립 추진**
  - 3.3 쿼드 외교장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테러리즘, 폭력적 극단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 및 인도·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목적으로 '대테러 워킹 그룹'을 설립한다는 공동 성명 발표
  - \* 미국·인도·일본·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
- **소셜미디어, 인도 무슬림 대상 폭력선동 게시물 방치**
  - 3.6 언론은 유튜브·페이스북·인스타그램이 인도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'소 자경단'\* 소속 힌두교 극단주의자 「모히트 야다브」의 폭력적인 게시물을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
  - \* 소를 보호하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구성한 집단으로 소고기를 먹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폭행·살인 등의 사례 빈번

## 중 동

- **팔레스타인, 신홍 무장조직 '라이온스 덴' 영향력 급속 확산**
  - 3.5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정책과 지도부의 리더십에 실망한 팔레스타인 젊은 세대들이 틱톡·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신홍 무장조직 '라이온스 덴'\*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
  - \* '22년 창설되어 수십만의 SNS 구독자 형성, 최근 이스라엘 정착지 습격 배후 자처
- **이란, 여학교 '독가스 테러범' 검거**
  - 3.7 언론은 이란에서 최근 잇따른 여학생 대상 독가스 테러\* 관련자 5명(男2,女3)을 체포했으며, 同人들은 反정부조직의 일원으로 학교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
  - \*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230여개 학교에서 두통·호흡곤란·메스꺼움·마비 증세 등 학생·교직원 포함 5천명 이상 피해

'16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국인 대상 흉기 테러

- '16.3.8 이스라엘 텔아비브市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 테러를 자행, 미국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행인 10명(이스라엘 국적 임산부 등)이 부상
  - ※ 테러범은 웨스트뱅크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로 해변 산책로 및 주변 식당 등에서 무차별 공격 후 경찰과 대치 중 사살
  - 테러단체 하마스는 同테러를 찬양하며 同人을 순교자로 칭송
- 이에, 미국은 “우리 국민의 비극적 사망에 슬픔을 표명하며, 이러한 테러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”며 비난 성명을 발표
  - ※ 同테러는 당시 美부통령 「바이든」과 이스라엘 前총리 「시몬 페레스」와의 회담 장소였던 평화센터 인근에서 발생
-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-웨스트뱅크 지역에 분리 장벽을 즉각 설치하고, 불법 체류자 고용·이동에 대한 처벌 법안도 강화
  - 또한, 전국에서 아랍계 불법 체류자(250여명)와 이들의 고용주, 불법 체류자의 이동 등을 지원한 조력자 27명을 긴급 체포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‘무슬림 형제단’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‘인티파다’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, 62년생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軍·民 대상 폭탄테러·총격·로켓공격·납치
- (주요테러)
  -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‘가자전쟁’ 발발, 800여명 사망
  - '19.5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700여발을 발사(사망 4명, 부상 80여명)